



寡點化되는 양계사육 동태

우리나라의 경우 양계사육동향을 보면 (78년 12. 31기준 축산진흥회) 1,000수 이상 농가는 549호로 닭 수수는 전체의 27.4%이며 5,000수 이상 농가는 1817호로서 이들이 사육하는 닭 수수는 47.4%로 점차 양계가 대규모화 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양계농가는 1,345,189 호이며 이 중 1,000수 이하의 부업농가수는 1,337,159 호로 전체의 99.4%에 이르고 있어 정부는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듯이 잘못 생각하기 쉬우나 5천수 이상의 1,817호 (0.14%)가 전체 닭수수의 거의 반인 47.4%를 사육하고 있는 것과 1,000수 이상의 8,000호가 70%를 사육하고 있어 이들을 세제면에서 적극 보호해야 될 것이다.

미국 45개 회사의 채란양계 시장점유율 35.5%

미국의 Poultry Tribune誌의 최근 집계에 의하면 미국의 100만수 이상의 규모 채란농장. 45개회사가 총 92,726,660수의 채란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전체의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1878년 부터 PT誌에서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매년 100만수 이상 보유하는

농장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채란 농장이 대규모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78년에는 34개회사가 69,650,000수의 채란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79년에는 41개회사가 81,884,780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Cal-maine Foods사는 13개주에 산재해 있는 농장 전체에 1,100만수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정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Cargil사는 480만수로서 작년도 4위에서 2위로 올랐으며 430만수의 규모로서 갈색계로는 세계 1위농장인 Decoster사는 3위로 밀려났다.

Julius 농장은 5위에서 7위로 밀려났으나 한장소에 자리한 농장으로서 세계 1위의 규모이다. 또한 특기할 것은 이 리스트의 농장 중 14개가 California주에 자리잡고 있어 California주는 난 생산 제 1위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Poultry Tribune誌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각 농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계하는 것으로서 미농무성의 자료 다음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PT誌의 편집자는 향후 5년만에 미국에는 60개회사가 전체 미국 채란계의 65%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Poultry Tribune)